

『 민원실 및 보건소에 아이셋 혜택 알림 』

□ 개요

- ✓ 민원실, 보건소,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 아이 셋일 때 혜택을 안내하여 저출산을 극복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 잘 모르셨죠, 3자녀면 아이 3명 모두 대학등록금 줍니다.
올해 '다자녀 국가 장학금' 늘려... 셋째 이상서 첫째·둘째도 혜택
나이 제한도 24세→29세로 확대, 소득 상위 20%는 장학금 제외
지난달 발표했지만 잘 안 알려져(기존에는 3째 아이만 등록금을 지원함)

다자녀 국가 장학금, 어떻게 달라지나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지원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첫째·둘째는 지원 안 함)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첫째·둘째도 지원)
나이 제한	만 24세 이하	만 29세 이하
인원	5만명	17만명(예상)
연간 지원액	소득 상위 20% 뺀 나머지 80% 지원 소득 3구간 이하 520만원, 4~8구간 450만원	

자료: 교육부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올해 크게 늘어난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대학생들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도입 이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첫째·둘째도 대학생이면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 제한도 지난해 만 24세 이하에서 올해 만 29세 이하로 늘었다.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지원 범위 확대로 수혜 대상이 작년 5만여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외에도 시도별로 세 자녀이상 가족에게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체육

시설감면혜택, 평생학습프로그램 감면혜택, 주민자치 프로그램 감면혜택, 오토 캠핑장 이용 할인혜택,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학생 어디 없소” 서울 도심 고교까지 덮친 ‘저출산 쇼크’

“풍문고가 어디죠?”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자 운전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되물었다. 기본요금 거리인데도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다. 풍문고의 옛 이름은 풍문여고다. 1937년 종로구 안국동에서 여고로 개교했지만 80년 만인 지난해 3월 강남구 자곡동으로 이전하면서 남녀공학이 됐다. 도심 공동화로 종로구에서는 학생 모집이 더 이상 어려워지자 내린 결정이었다.

‘저출산 쇼크’가 서울 도심 한복판 고등학교에까지 들이닥쳤다.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고1이 됐다. 고교들은 생존을 위해 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 고교로 넘어온 ‘저출산 쇼크’

신축한 풍문고 교실의 책상 간격은 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널찍했다. 맨 뒷줄 학생과 칠판까지 거리는 불과 열 걸음. 학교가 칠판과 책상 간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설계했다. 통학거리가 먼 학생과 학교에서 24시간 관리받기를 원하는 학생을 겨냥해 일반고로는 드물게 기숙사도 지었다.

1988년 2000여 명이던 풍문고 학생 수는 2015년 962명으로 줄었다. 그해 학교 이전이 결정되자 통학거리가 멀어진 학생들이 대거 전학가면서 지난해 학생은 530명으로 더 떨어졌다. 올해는 614명으로 반등했다. 풍문고 김길동 교장은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 때부터 공을 들였다”며 “수서역 인근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학생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학생을 찾아 터전을 옮긴 학교는 또 있다. 1944년 서울 중구 명동에 개교한 계성여고는 학생 유치를 위해 2016년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전했다. 신설 학교는 남녀공학이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계성여고도 남녀공학인 계성고가 됐다.



○ 학생 더 줄면 교실 붕괴 우려

앞으로 학생이 더 줄면 모둠활동 등 수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우 관계도 좁아지고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학생이 줄어도 교사는 자르기 어려워 교사가 고령화되고 수업 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건 저출산 쇼크가 ‘신(新)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다녀야 유리한데, 이런 학교는 교육 인프라가 좋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노원구에 몰려 있다. 다른 지역은 학생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 교육 인프라가 황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영대 한양대 교육복지중점연구소 교수는 “학교가 부족한 곳은 계속 부족하고, 남는 곳은 계속 남는 지역 간 불균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학생 수가 더 줄면 오히려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저출산 사회에 맞도록 교육시스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개선사항

- ✓ 민원실, 주민센터, 보건소, 소아과, 도서관 등에 아이 셋일 때 혜택을 안내하여 저출산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 다자녀(3자녀 이상) 안내문 ■

- ▷ 3자녀면 아이 3명 모두 대학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최대 520만원 * 3명 * 4년 = 6,240만원
- ▷ 세 자녀이상 가족에게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체육시설감면혜택, 평생 학습프로그램 감면혜택, 주민자치 프로그램 감면 혜택, 오토캠핑장 이용 할인혜택,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시·군문의)

- ✓ 민원실 안내데스크, 민원서류 작성대, 민원창구 등에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안내하여 혜택을 몰라 누리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합니다.
- 보건소, 소아과 등에도 게시하면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는 부모님들이 보게 됩니다.

□ 기대효과

- ✓ 3자녀 이상이면 3자녀 모두 대학등록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 안내를 통해 등록금지원 정보를 알게 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 현재 아이가 2명인 부부가 한명 더 낳을까 고민하게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효과를 발휘합니다.